금주의 법구-〈법구경〉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잘라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0월 27일)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지역복지 양극화 줄일 교구법인 설립 가속화

고운사, 백양사 年中 설립
용주사 등 7곳은 추진 중
중앙집중서 교구중심 개편
'관리 · 운영효율 강화' 기대

지역복지 살리는 교구 복지법인
1. 교구 복지법인 설립현황
2. 교구 복지법인 의미와 전망
3. 교구 복지법인 모범사례와 과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어 불교계 복지 네트워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교구본사 복지법인의 잇따른 설립은 그동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국 복지시설이 이관 및 분산으로 이어져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펴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에 따르면 늦어도 올해 말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와 제18교구 백양사서 (가칭)고운사복지재단과 (가칭)백양사복지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조계종유지재단 지점 형태로 운영된 고운사 요양원(2006년 개원)과 백양실버타운(2008년 개원) 소유권이 교구본사 복지법인으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12월 중 개회할 제 223차 임시회서 '조계종 유지재단 재산 증여 동의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운사와 백양사를 포함해 현재 법인 설립 추진 중인 교구본사는 총 7곳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사찰은 용주사, 은해사, 봉선사, 해인사, 화엄사 등이다. 만일 해당 본사 복지법인 설립이 완료될 경우, 전체 25곳 교구본사 중 21곳이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불교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각 교구본사들이 지역별 사회복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복지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운영체계를 기존의 중앙 집중 형태서 교구본사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 분산된 복지시설 관리에 따른 중앙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밀착적인 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18년 배포된 불교사회복지 편람에 따르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산하시설은 총 184개에 이어 2020년 기준으로는 200개소를 넘어섰다. 재단 종사자 24명 중 3분의 1인 8명이 산하시설 운영을 담당하지만, 시설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동안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특히 수탁시설인 경우 해당 지역사찰을 운영지원사찰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지만,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중앙의 복지재단이 떠안게 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재단 규모의 비대화와 함께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공존함에 따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불교계가 위수탁 받은 시설 및 기관 등을 교구본사가 설립한 법인 산하로 순차 편입시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당시 복지법인 운영 교구본사가 절반에 불과한 데다, 사실상 시설 수탁 경쟁서 우위 선점 법인이 소수에 불과해 적극적인 시설 이관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1957년 제 23교구 제주 관음사 불교자비원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중단됐다가 1990년대에 법인 설립이 활성화됐다. △제15교구 양산 통도사 △제9교구 대구 동화사 △제3교구 속초 신흥사 △제14교구 부산 범어사 △제13교구 하동 쌍계사는 1990년대에 복지법인을 설립한 본사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제17교구 김제 금산사가 금산사복지원(2000년)을 설립한 이후 2007년이 돼서야 제4교구 월정사서 월정사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2008년 제8교구 직지사가 직지사복지재단을 설립했지만 그 이후 한동안 그 맥이 끊겼다.

지지부진한 교구 법인 설립은 다시 10년이 지난 2018년, 보인 스님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현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2018년 제 11교구 본사 경주 불국사에 불국사복지재단이 설립을 지원했고, 2019년 신년간담회에서도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사회복지 균형 발전 기반 구축을 강조하며, 불교사회복지 인프라를 교구본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피력했다.

현재 25개 교구본사 중 사회복지법인을 운영중인 교구본사는 제3교구 신흥사를 포함해 14곳이다. 복지법인 설립 추진 중인 7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아직 추진 계획이 없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미법인 교구본사의 설립 참여를 지원 독려해 각 교구본사를 거점으로 하는 불교사회복지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김남국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운영사업본부장은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만큼 종국에는 모든 교구본사가 산하의 복지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의 사회복지재단은 재단법인 고유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역교구 복지법인들이 중앙의 사회복지재단과 더불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년 불교언론 발전 주역들 불교언론 발전을 이끌어 온 언론사와 원로 언론인을 상찬하는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광삼 본지 초대사장(창간 발행인 · 사진 두번 째 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불교언론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들과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들의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차별금지법, 부처님 가르침과 같다"

조계종, 11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

"국민 90% 찬성…외면 안돼"

조계종이 정기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1월 24일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21대 국회는 10만 명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한 것에 대한 국회 청원심사를 2024년으로 연기했으며 4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례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한 조계종은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0% 가까이 찬성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와 같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겠지만 그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법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종단 스님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당 앞 정기 기도회, 30㎞ 오체투지 등을 비롯해 수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조계종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존엄하고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뜻과도 계합돼 있음을 밝히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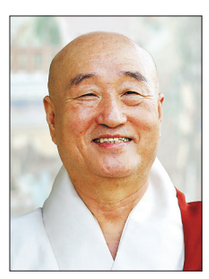
한편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 장애 · 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포함한 국민청원 5건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미루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임은호 기자

제33회 포교대상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오는 12월 3일 시상식 개최

한해 동안 활발한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포교대상 대상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 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은 11월 23일 제33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로 △대상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공로상 종오 스님(호국무열사 주지), 진명 스님(시흥 법련사 주지,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방창덕 포교사단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원력상에는 동련 사무총장 미수 스님, 화성 신흥사 주지 선관 스님, 조길문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김명숙 동국대의료원 기획처 대외협력홍보팀장, 김화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장, 조한영 수덕사 신도, 정홍임 국제선센터 신도, 김나연 포항 관음사 신도 등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 일면 스님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며,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등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대구동화사 말사
거제 신광사
신광사 수목장은…
첫째, 가깝습니다.
| 거제대교에서 5분, 거가대교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둘째, 믿을 수 있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신광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안심하고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영구 안치해 드립니다.
| 한번 안치로 영구적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합니다.
| 개인목부터 가족목까지, 총 8종의 다양한 수목을 추모목으로 구성하고 있어 유가족의 형편과 실정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855-0494 직통 010-2094-0580
경남 거제시 사등면 오랑2길108

